

#01

‘게삭이’

병긔-이
#졸아서 입이 게삭이 벌어졌다.

#02

‘구짝’

곧장. 옆으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
#이 길로 구짝 가세요.

#03

‘근당-ㅎ다’

정해진 목표나 목적지에 가까이 이른다.
#한라산 정상에 근당ㅎ여시난 쉬었다 가자.

#04

‘구췌’

조금 전. 방금
#개 구췌 나갔는데 못봤어?

#05

‘내남어시’

내남-없이. 나와 다른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로
#우리는 내남어시 모두가 소중합니다.

#06

‘노고록-ㅎ다’

사람의 성질이나 물건따위가 여유틈다.
#그 사람 성격이 아주 노고록하네.

#07

‘놀메-타다’

노는 데 정신이 팔린다.
#아이이는 놀메타난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.

#08

‘느끔-ㅎ다’

마음이 놓이다. 긴장이 풀리다.
#할 일 다하니 느끔호 모양이다.

#09

‘베지근-ㅎ다’

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 같은 것이 맛이 있다.
#이 집 물국은 참 베지근하여.

#10

‘눌찌락-ㅎ다’

차분하고 온순하다.
#그 아이는 아주 눌찌락하형 마음이 들어.

#11

‘다글다글’

곧 걷기 시작한 어린 아이가 서툴고 재게 걸어가는 모양.
#아이가 제법 다글다글 걷기 시작하고 있더라

#12

‘메께라’

남이 하는 짓이나 말이 너무도 기가 막힐 적에 내는 소리.
#메께라, 너 대체 뭐라고 하는거야?!

#13

‘몽상몽상’

잠이 오지 아니하여 누워서 몸을 연신 이리저리 뒤척이는 모양.
#어제는 잠이 안와 몽상몽상하며 밤을 새웠어.

#14

‘바롱바롱’

조금 큰 구멍이 많이 나 있는 모양.
#구멍이 바롱바롱 뚫려서 바람이 막 안으로 들어옵니다.

#15

‘밤새낭’

밤새 내내
#밤새낭 어디서 무엇 하면서 놀다가 이제야 오니?

#16

‘베롱베롱’

여러 가지 색이 알락달락한 모양. 불빛이 반짝이는 모양.
#꽃자왈에 반딧불이가 베롱베롱

<div>#17</div> <div>‘복삭-거리다’</div> <div>마음이 설레어 가만히있지 못하고 무슨 짓을 하려고 자꾸 움직이다. #친구는 데이트가 있는 지 자꾸만 복삭거린다.</div>	<div>#18</div> <div>‘봉그다’</div> <div>비용이나 노력을 들임이 없이 뜻하지 않은 물건을 거저 줍다. #바닷가를 거닐다 예쁜 조개껍데기를 봉갔다.</div>
<div>#19</div> <div>‘분날’</div> <div>화창하고 바람이 잔잔한 날. #이런 분날 회사에서 키보드나 두드리고 있다니..</div>	<div>#20</div> <div>‘뽕그랑-헛다’</div> <div>음식이나 물건 따위가 가득하다. #배가 아주 뽕그랑헛다.</div>
<div>#21</div> <div>‘슬근-돌다’</div> <div>둘이 서로 귀엣말로 이야기하다. #나는 비밀을 짝궁에게만 소곤소곤 슬근돌았다.</div>	<div>#22</div> <div>‘송송송송’</div> <div>어린이가 깊이 자는 모양. #아이가 송송송송 아주 잘도 잔다.</div>
<div>#23</div> <div>‘붕당붕당’</div> <div>불평이나 불만을 자꾸 되뇌이는 모양 #붕당붕당하지 말고 기분좋게 일합시다!</div>	<div>#24</div> <div>‘좁짝-헛다’</div> <div>(간격이) 좁다. 비-좁다. #자리가 너무 좁짝해서 그런데 옆으로 좀 가줄래?</div>
<div>#25</div> <div>‘앵그리다’</div> <div>글자, 그림 따위를 장난으로 아무데나 함부로 쓰다. #책에 앵그렸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어.</div>	<div>#26</div> <div>‘와리다’</div> <div>마음이 아주 조급하여 서두르다. #와리지말고 침착하게 찾아봐!</div>
<div>#27</div> <div>‘푼두룽-헛다’</div> <div>마음에 만족하여 흐뭇하다. #칭찬해주니 푼두룽한 모양이다.</div>	<div>#28</div> <div>‘아올아올’</div> <div>저절로 틈이 벌어지는 모양 #봄이 되니까 아올아올 꽃이 피고 있구나.</div>
<div>#29</div> <div>‘지꺼지다’</div> <div>(사람이 어떤 일을)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게 여기다. #친구에게 꽃선물을 했더니 엄청 지꺼져했다.</div>	<div>#30</div> <div>‘아도록-헛다’</div> <div>아늑하다. #집이 참 아도록흔게 편안하네요.</div>

<div>#31</div> <div>‘살을-일’</div> <div>살아가는 데 아주 긴요하고 값어치 있는 일 #사람마다 살을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은 중요하다.</div>	<div>#32</div> <div>‘서툰-바치’</div> <div>어떤 일에 경험이 없어 솜씨가 서툰 사람 #서툴어도 괜찮다. 처음에는 누구나 서툰바치이다.</div>
<div>#33</div> <div>‘석석-헉다’</div> <div>뜨거웠던 것이 서늘하다 #치킨은 석석해도 맛있는 법이다.</div>	<div>#34</div> <div>‘설르다’</div> <div>끝내다. 마치다. 그만두다. #일 그만 설렁 집에 갑시다!</div>
<div>#35</div> <div>‘맥-늑리다’</div> <div>몸의 모든 기운이나 힘이 발로 내려오다. #아이고 맥늑려서 더 이상 걷지 못하겠다.</div>	<div>#36</div> <div>‘모다-들다’</div> <div>모이다. 모여들다. #축제가 시작되니 사람들이 모다들기 시작하였다.</div>
<div>#37</div> <div>‘속숨-헉다’</div> <div>아무 말도 아니하고 입을 다물다. #아이는 삐졌는지 속숨헉여 뒤돌아 앉았다.</div>	<div>#38</div> <div>‘췌다리’</div> <div>췌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 #더운 여름 췌다리 한잔이면 더위가 싹 가신다.</div>
<div>#39</div> <div>‘베지근-헉다’</div> <div>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 같은 것이 맛이 있다. #이 집 몸국은 참 베지근헉여.</div>	<div>#40</div> <div>‘아이고-게’</div> <div>아이고-나 #아이고게, 이게 어찌된 일이니?!</div>
<div>#41</div> <div>‘암푸룻-헉다’</div> <div>마음에 만족감을 느껴 흐뭇하다. #씨앗을 심었는데 드디어 싹이 나 매우 암푸룻헉다.</div>	<div>#42</div> <div>‘앙앙-작작’</div> <div>여럿이 모여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. 또는 그 모양. #그만 앙앙작작하고 일 합시다!</div>
<div>#43</div> <div>‘곶곶곶’</div> <div>강아지를 부르는 소리. #곶곶곶! 간식먹자~~~ 곶곶곶!</div>	<div>#44</div> <div>‘자파리’</div> <div>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놀이 또는 장난. #어린 때 자파리가 심해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다.</div>
<div>#45</div> <div>‘바각-헉다’</div> <div>부글-거리다. 술 따위가 발효하여 거품이 생기어 솟아오른다. #췌다리 바각바각헉는 소리가 아주 좋네요.</div>	<div>#46</div> <div>‘건건-헉다’</div> <div>바람이 건들건들 불어서 시원하다. #건건훈날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.</div>

<div>#47</div> <div>‘작산-어른’</div> <div>어른이 어른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, 그를 나무라서 하는 말. #작산어른이 하는 짓이 그게 뭐니까?!</div>	<div>#48</div> <div>‘잘도’</div> <div>매우. #네가 오니 잘도 행복하다.</div>
<div>#49</div> <div>‘스망-일다’</div> <div>사망-일다. 재수가 좋은 일이 생기다. 운이 좋은 일이 생기다. #길에서 주은 돈으로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라니 스망일었네!</div>	<div>#50</div> <div>‘헤끄만-헉다’</div> <div>작다. #글씨가 너무 헤끄만해서 잘 안보인다.</div>
<div>#51</div> <div>‘흑밥-장난’</div> <div>소꿉장난. 아이들이 흙을 반죽하여 음식을 차리는 흥내를 내며 노는 일. #요즘은 놀이터에 흑밥장난 하는 아이들이 많이 보이지 않네.</div>	<div>#52</div> <div>‘헉꼼-헉민’</div> <div>그저 약간하면. 무슨 일이 조금만 있으면. #친구와 산을 오르는데 헉꼼헉민 쉬자는 통에 힘들었다.</div>
<div>#53</div> <div>‘흘긋-흘긋’</div> <div>이제나저제나 하고 무척이나 기다리는 모양. #흘긋흘긋 하는 모양이 누군가 기다리는 모양이네.</div>	<div>#54</div> <div>‘노히다’</div> <div>같은 음식만 자꾸 먹어서 그 음식이 싫어지다. #일주일 내내 같은 메뉴라니 노히여 못 먹겠다.</div>
<div>#55</div> <div>‘늑리-곤다’</div> <div>상대방이 듣기 좋게 말하다. #저 사람은 늑리곤는 재주가 있어요.</div>	<div>#56</div> <div>‘득로갱이’</div> <div>아주 자그마한 밭. 집 주위에 있는 작은 밭. #득로갱이의 메밀꽃이 아주 예쁘다.</div>
<div>#57</div> <div>‘또가-또가’</div> <div>긴장하여 가슴이나 심장파위가 심하게 뛰는 모습. #발표를 앞두고 또가또가하여 청심환을 먹었다.</div>	<div>#58</div> <div>‘그자락’</div> <div>그렇게까지. 그 정도로. #그자락 놀랄 일까진 아닌데...</div>
<div>#59</div> <div>‘벨진-밭’</div> <div>‘별이 떨어진 밭’이란 뜻으로, 넓고 기름진 밭 #벨진 밭이라 그런지 주렁주렁 과일이 잘 여물었다.</div>	<div>#60</div> <div>‘우친-날’</div> <div>일기가 흐리고 비 파위가 오고 하는 날. #이런 우친 날에는 집에서 텅굴텅굴 하고 싶다.</div>